이제 潤松이 가셨으니 巨木이 쓸어져 뜨거운 볕을 가려줄 그늘이 없어진듯 寂寞하다。同人들은 故人의 뜻을 이어 本誌發展에 努力하여 往生極樂하신 靈前에 供養하려한다。

考古美術同人

吊辭(普成中學校에서의 永訣式 吊辭)

金 庠 基

潤松先生! 삶이 꿈인가요 죽엄이 꿈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도 꿈인지요 도시 꿈만 같읍니다。

潤松先生! 우리 걸어온 過去 六十年이란 우리民族으로는 일찌기 걸어보지 못한 荊棘의 길이었읍니다。우리는 三十餘年동안 亡國의 恨에 잠겼었으며 그 뒤를 이어 南北의 分斷으로 六·二五의 民族的慘變을 겪었던 것입니다。이러한 民族的受難期를 通하여 先生은 오로지 愛族愛國의 一念으로 살아 오셨읍니다。그러기에 倭人의 손을 거쳐 흩어지고 사라지는 우리의 民族的文化財를 蒐集保存하시기에 三十年을 하루같이 모든 힘을 傾注하시지 아니하셨읍니까、멀리 日本에 까지 건너가셔서 우리의 文化財를 回收하실제 그 愛國的熱誠은 在日 西洋사람까지 感動시키지 아니하셨읍니까 그러한 結果로 오늘날 金이나 玉으로도 바꿀 수 없는 數많은 우리 文化財가 이 땅에 지터있게되지 않었읍니까、國寶展示에 있어서도 潤松의 所藏品이 아니면 그 빛을 多彩롭게 發揮하지 못하는 現實입니다。

潤松先生! 先生은 우리 敎育界의 恩人이며 支柱이시었읍니다。빼앗긴 祖國을 다시 찾고 荒廢한 文化를 되살리는데에는 무엇 보다도 人材養成과 後進指導가 急先務인것을 先生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시었읍니다。우리 母校 普成學校가 쓰러지려할 때에 先生은 온 私財를 기울여 다시 이르켜 세우시고 育成하여 오신것이 二十餘星霜입니다。그동안 많은 人材가 여기에서 길러졌으며 장차 永遠無窮히 길러지게 될것입니다。

潤松先生! 이 學校經營에 얼마나 勞心焦思를 하셨읍니까。先生이 中央醫療院에 入院하셨을 때에 問病간 洪校長과 李課長과 나에게 學校걱정을 하시던 일이 바로 보름 前인데 이게 웬 일입니까。先生! 育營事業과 文化財保存事業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가버리셨읍니까。하늘이 원망스럽고 땅이 야속히 여깁니다。

潤松先生! 先生의 人格은 高潔하시고 天性이 溫厚하시며 名譽나 地位같은 것은 뜬 구름같이 보시고 오직 自己의 所信을 默默히 實行해 오셨읍니다。先生은 豊富한 修養과 經驗 그리고 端雅한 文翰의 솜씨와 淹博한 鑑識力의 所有者이시었읍니다。

潤松先生! 先生의 感化와 薰陶의 힘은 實로 큰 바가 있읍니다。先生이 길러내신 普成의 健兒와 先生을 私淑한 考古·美術學界의 人士는 實로 多士濟濟의 觀이 있읍니다。先生의 남기신 뜻과 先生이 이르키신 事業은 先生의 門生과 後輩가 뒤를 받들어 빛낼것이오니 先生이시어 고히 잠드소서

壬寅 一月 三十日 金 庠 基 拜哭

潤松을 哭함

李 相 佰

潤松의 돌아가시는것이 너무도 意外의 일이오 급작스러웠기때문에 몇번이나 이 글을 쓰라는 督促을 받았으나 붓을 들 생각이 도무지 나지않았고 또 붓을 들어 보아도 쓸 말이 별로 없는것 같다。아직도 鍾路四街의 좁은 골목을 들어가서 낮은 中門을 밀고 사랑마당으로 들어서서 소리만 지르면 부드러운 얼굴로 潤松이 窓門을 열고 곧 나올것만 같다。潤松을 永永만나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나지않는다。

내 病에 시달리고 閑暇한 時間을 얻지 못하여 얼마동안 潤松을 만나지